

한글-Korea 생활속담

: 2026 1 15 8:38

| 타이틀 | 설명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도토리 키 재기 |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 |
|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| 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 |
| 돼지에 진주 |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|
|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|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큰 되값을 당한다는 말 |
|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|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다는 뜻으로,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은 처음부터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|
|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| 무슨 일이든지 양편의 손이 서로 맞아야 할 수 있다는 말 |
|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| 두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그중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음식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뜻으로, 음식의 맛이 대단히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|
|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| 도랑을 치우고 나면 진흙에 숨어 있던 가재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가재를 잡는다는 뜻으로,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애쓴 보람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|
| 되는 집에는 가지 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| 잘되어 가는 집은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말 |